

○ 질문사항

- 삼산두레농악과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 삼산두레농악이 검증되고 고증된 복원과정 및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부평구의 향후 방향과 대책

(질문자 : 손철운 의원)

(답 변 : 구 청 장)

答 辯

-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산두레농악과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평삼산두레농악은 2003년부터 문화원에서 정원호 전통 민족문화 연구소 부소장, 조정현 민족미학 연구소 연구위원, 조성돈 부평문화원 사무국장의 사료조사와 삼산동에 거주하시는 신현길, 이원화, 최기만, 조종기씨 등 많은 주민들의 제보와 채집을 통하여 삼산두레농악의 가락을 고증 구성하였습니다.
- 삼산두레농악가락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60년대 말에 녹음된 테이프가 있어 분석 녹취하여 현재 부평삼산두레농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그동안 삼산두레농악의 고증확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부평풍물의 지역적 특성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부평CJ케이블넷에서 삼산두레농악과 관련한 기획특집을 제작하여 2주간 방영하였으며,

삼산동에서 시연회를 3회에 걸쳐 진행하여 주민들이 지역 풍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 삼산두레농악을 인천시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5년 1월에 인천시에 신청하였으나 문화재 신청단체의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계보와 연보 정리 미흡 등으로 보완 반려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삼산두레농악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7년초에 “부평풍물단”을 창단하여 삼산두레농악 전수단체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앞으로 “부평풍물단”에서 많은 논의를 통하여 삼산두레농악을 보존하고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있는 전수자를 정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사항

-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 타지역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발생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내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질문자 : 박창재 의원)

(답 변 : 구 청 장)

답 辯

- 이어서 “부평구청 구내식당 위탁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내식당 운영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C·J푸드시스템(주)에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2006년부터 (주)아워홈 측과 2년간의 위탁계약을 맺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재료 공급은 업체 자체적으로 대규모 산지조달을 통한 가격경쟁력과 품질 확보로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 위생관리는 구에서 매월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 자체적으로 연 6회에 걸쳐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운영현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운영수익 면에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운영수익의 적자원인은 초기시설 투자비와 행사식 감소 및 건물 사용료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운영업체의 선정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들로 구성된 『부평구청 후생복지 이사회』에서 참

가업체 중 재정의 건전성,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1차로 3개업체를 선정하고 현지 시식 등의 실사를 통하여 최종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마는 지역업체의 장,단점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사항

- 풍물상설공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 풍물상설공연장 설치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위치는 어디인가?

(질문자 : 김유순 의원)

(답 변 : 구 청 장)

答 辯

-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상설공연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평풍물대축제는 97년 이래 11회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하고 “지역축제의 발전모델”로 평가받는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에서 벌어지는 지역축제”라는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예술축제로 재탄생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풍물에 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7부평풍물대축제시 풍물상설공연장 건립을 시장님께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는 부평지역내 상설공연장 건립부지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사항

-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희망천 노인정 및 복합시설 신축, 어린이 보육시설 신축 등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및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 사업예산이 편성되기까지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정작 사업집행에 있어 부족한 이유는?

(질문자 : 이익성 의원)

(답 변 : 구 청 장)

答 辯

-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예산의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2007년도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31건 251억원으로 2007년 6월말 현재 발주는 29건 84억원으로 93.5%의 높은 발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07년도 조기집행 대상사업 중 희망천경로당의 경우 당초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추진중 경로당 회원 이외의 다른 계층도 사용토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건물 규모 및 시설 배치 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최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07년도 구립 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총 사업비 15억중 5억원의 사업비로 청천2동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평2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구입하지 못해 현재 다른 장소를 물색중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한 부평2동, 부평4동, 부개1동, 부개2동은 공통적으로 주택재개발이나 지구설정 등의 기대감으로 감정평가금액보다 매매가가 높아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 조기집행은 사업예산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우리구의 경우 2007년 6월말 현재 93.5%의 높은 발주율로 10개 구·군 중 3위로 조기집행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다소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새로이 발생하여 정상 추진이 어려워 조기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직원들의 조기집행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사항

- 일신동 배드민턴장 보수의 건에 대하여?
 -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설치
 - 화장실 악취 등 개선대책

(질문자 : 이재승 의원)

(답 변 : 부 구 청 장)

答 辯

-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신동 배드민턴장 보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일신동 79번지 일원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2000년 12월 27일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1,009㎡ 면적에 배드민턴장 7면과 체력단련시설 9종 및 이동식화장실 2개, 사무실 1개소의 부대시설을 갖추어 2005년 3월 11일 건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 현재 일신동 배드민턴장의 관리 운영은 부평구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일신동 배드민턴 클럽으로 위탁하여 동호회 및 많은 주민들의 관심으로 배드민턴 회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일신동 배드민턴장에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공간 도시계획시설내 위치하고 있어 건물 증축 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로 처리하여 증축을 하여야 하나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사무실이나 창고용도 외에는 신고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최근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증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사무실 증축 요구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도로공사에게 토지사용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승인 거부로 인하여 증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로 화장실 악취 등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하수관이 없는 지역으로 수세식 화장실은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화장실의 악취 제거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향후 냄새가 나지 않는 자연 친화형 이동식 화장실에 대하여 동호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사항

- 열악한 재정운영의 개선방향은?
 - BTL사업,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문자 : 신은호 의원)

(답 변 : 부 구 청 장)

答 辯

- 다음은 존경하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악한 재정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2007년 7월 현재 확정된 구의 채무는 102억원이며 2007년도 연말까지 발행할 101억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203억원으로 발행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20억원, 십정녹지 조성 41억원, 갈산근린공원조성 40억원입니다. 특히 십정녹지조성과 갈산근린공원의 경우 매년 지가상승으로 연차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하여 보상할 시 보상비의 증가로 우리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보상비 조기상환으로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3.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시에서 이자 전액 부담을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참고로 우리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총액 한도(2007년 101억)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BTL사업인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은 우리구 관내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십정동 186-411번지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5년 5월에 BTL대상사

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부평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어 2006년 4월 주식회사 부평 C&A와 협약체결했으며, 2009년 8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준공 후 20년간 BTL사업비로 시와 구가 각각 26억원 총 52억원을 매년 부담하고 연간 8억원의 재단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년간 매년 재단운영비 및 BTL사업비 지급에 따른 구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평문화예술회관을 『2009년 인천세계도시 엑스포』 『2009년 인천방문의 해』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공간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 부담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여 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우리구에서도 향후 구의 채무행위에 있어서는 구의 예산규모를 면밀히 판단하고 예산운용의 최적선에서 구민을 위해 필요한 투자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등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한 재정운영과 투자사업비에 대해 안정적·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사항

- 부패연루 의혹 해소 방안과 그 대책은?

(질문자 : 신은호 의원)

(답 변 : 부 구 청 장)

答 辯

- 이어서 “부패 연루 의혹 해소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과 성실을 공직수행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이자 보람이라고 사료됩니다.
- 최근 신문이나 방송 등에 우리구와 관련되어 보도된 사건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와 연루된 듯하게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사법적 책임은 물론 비위정도에 따라 행정벌까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으나,
- 한편으로는 확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가 언론에 공표됨으로서 심각한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제 자신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그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특히 “부정부패” 근절을 공직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고 부정부패

없는 부평구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 복무 점검”,
“청렴의식 제고 교육” 등을 통한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문사항

- 부평풍물대축제의 올바른 진행방향의 대안은?

(질문자 : 신은호의원)

(답 변 : 부 구 청 장)

答 辯

- 이어서 “부평풍물대축제의 올바른 진행방향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평풍물대축제는 97년 이래 제11회를 개최하여 명실공히 인천을 대표하고, “지역축제의 발전모델”로 평가받는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 11회를 맞은 2007부평풍물대축제는 두레! 도시를 걷다라는 주제하에 국내외 관람객이 100만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이제 부평풍물대축제는 부평에서 벌어지는 지역축제라는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예술축제로 육성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부평풍물대축제는 기획과 행사진행 등에 있어서 축제위원회 기획단에서 작성하여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되고 있으며, 민간부분과 구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나,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함에 있어 세심하게 배려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 또한, 축제결과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축제 평가팀을 구성하여 의뢰한 상태이며 이에 평가결과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은 내년 축제시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민 모두가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및 구민화합은 물론 지역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신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의 대표축제에 걸맞도록 축제기획단과 구청과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운영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축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또한, 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하고 지역고유의 전통문화와 주민이 결합한 축제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추가질문사항

- 부지매입비 연체료를 우리구가 모두 물어야 하는지?

(질문자 : 전현준 의원)

(답 변 : 부 구 청 장)

答 辯

- 전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비 연체료를 우리구가 모두 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소유 십정동 186-411호외 2필지 대지면적 11,502㎡에 대하여 국방부와 2005년 11월 30일 82억원에 매입키로 국유재산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 부지매입비 예산 82억원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시비 39억원과 구비 43억원(문화공보과+녹지조경과)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1차로 2005년11월30일 37억원을 납부하였고, 2차 45억원 중 약 25억원 시비부담에 대하여는 2006년11월30일 약 21억원과 2006년12월28일 약 4억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나,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나머지 20억은 공사착공 지연으로 지방채발행이 늦어져 연체료가 발생되었습니다.
- 연체료 지급사유로는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3조제3항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율을 적용하여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연체금액은 붙임과 같이 일금 197,730,000원 되겠습니다.